

대한통운 혁신 이끈 베테랑... CJ '글로벌 사업' 키워드 제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1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전 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영 환경도 실시간으로 급변한다. 국내 유통·식품 기업들은 세계 각지의 원료와 자재 등을 가져와 세계 각지로 판매하는 글로벌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런 전 세계적 실시간 연결시대에 경영자의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유통·식품업계 수장으로 새로 취임한 주요 기업 CEO들의 비전과 경영스타일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주요 약력

- 1961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1988 삼성그룹 신입공채 입사
- 1988~2000 CJ제일제당 경영관리
- 2002 CJ제일제당 경영관리팀 팀장
- 2003~2004 CJ주식회사 운영1팀장
- 2005~2009 CJ주식회사 인사팀장(부사장)
- 2010~2011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 2012~2013 CJ주식회사 사업1팀장
- 2013~2016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 2016~2017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 2018~2019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대표
- 2020 CJ제일제당 대표이사
- 2020.12~2024.2 CJ대한통운 대표이사
- 2024.2~ CJ제일제당 대표이사(부회장)

CJ는 지난달 CJ제일제당 신임 대표이사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강신호 대표는 1988년 그룹 공채로 입사해 CJ그룹 인사팀장,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등을 거쳤다. 2021년 CJ대한통운 대표를 역임하기 전까지는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냈다. 2021년 정기인사에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주요 사업부문의 구조를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체질부터 개선해 2023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4802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는 등 재임 기간 중 대한통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CJ의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인 강 대표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CJ제일

공채 입사... 그룹요직 두루 거쳐 대한통운 최대 영업이익 달성 등 성과 월드 베스트 식품·바이오기업 비전

제당으로 복귀한 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2022년(CJ대한통운 제외) 매출액 18조7794억원, 영업이익 1조2682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CJ제일제당의 매출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17조8904억원, 영업이익은 35.4% 줄어든 8195억원에 그쳤다.

식품 사업은 성장을 지속했지만 바이오 사업 부문 실적이 급속히 악화된 탓이다. 지난해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1% 줄었고 CJ피드엔지니어는 사업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사료 수요 부진으로 864억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중국의 육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라이신 등 사료용 아미노산을 대표하는 그린 바이오 시장이 침체에 빠진 여파다. 바이오 사업 부문의 체질 개선과 함께 본업인 식품 사업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강 대표의 임무인 셈이다.

강신호 대표는 그룹 내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만큼 강 대표의 복귀는 그룹 '소방수'로 투입해 CJ제일제당의 실적 반등을 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강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CJ그룹에서 공채 출신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

재현 CJ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현실가능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워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자라고 평가받는다.

CJ제일제당 취임 직후 강 대표는 '글로벌 사업'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강 대표는 최근 CEO 인사말을 통해 "CJ제일제당은 국내 종합식품 1위 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인 글로벌 사업을 강화해 월드 베스트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전했다. 식품과 바이오 사업을 두 축으로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비비고 브랜드 사업을 강화하되, 부진한 사업과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 재임 당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적 개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종만 대표, '동물 친화적 도시' 로드맵 공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1면 '익산에 동물...'서 계속

이 기업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AF(애니멀-프리) 솔루션을 제공, 다양한 동물대체 시험법을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은 앞으로 동물 오가노이드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은 세계 최초 동물용 오가노이드 전진 기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협약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동물용 오가노이드 산업의 기반으로, 익산을 글로벌 동물 친화적 도시로 키워낼 수 있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익산은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큼 동물 친화적인 도시인데다 동물용 의약품 평가 센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인수공통 감염병센터, 원광대학교 반려동물관련 학과,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풍부한 동물 산업 연계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점이 있다. 또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동물용 오가노이드 개발의 전진 기지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동물 오가노이드, 어떻게 활용되나
동물용 오가노이드는 인체 오가노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우선 동물용 사료는 물론 치약, 스프

레이 같은 화장품이나 유산균과 같은 건기식의 독성, 효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런 동물용 제품은 대부분 인체 실험을 통해서만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미 그라스메디와 함께 반려동물용 치약의 효능, 독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종만 대표는 "사람에 안전하더라도 동물에 어떻게 누적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동물용 오가노이드가 활용되면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용 감염병에 대응하거나 동물용 재생치료제 개발에도 오가노이드가 활용될 수 있다. 개체별로 채취한 중앙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동물용 항암제 진단서비스나 맞춤형 항암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동물 오가노이드 평가 센터와 연구소, 동물 오가노이드뱅크, 동물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4월 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유 대표는 "동물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 병원 인프라를 갖춘다면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 오가노이드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분야라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교보생명의 이웃사랑 이야기 '황제펭귄' 편

서로를 돕는 따뜻한 이웃사랑 그것이 생명보험의 가치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겨냥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